

(금융소비자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금소법·인뱅법·특금법 20대국회 문턱 넘을까

법사위, 내일 논의... 27일 본회의
DLF·라임사태에 금소법 부각
인뱅법엔 케이뱅크 운명 걸려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총선 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지만 최근 과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됐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인뱅법) 개정안에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걸려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6일 법사위에서는 금소법과 인뱅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율을 마친 법률은 본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사위가 관건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직접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본 회의는 다음날인 27일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 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해 전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위법계약 해지 요구권과 징벌적 과징금, 판매제한 명령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DLF와 라임펀드에서 대규모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금소법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달 열린 법사위에서도 금소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금소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같이 묶어 처리하기로 한 인뱅법 개정안이다.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인뱅법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해 금소법까지 같이 다음 법사위로 계류됐다.

인뱅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가 자구·체계 정도만 심사해 통과시키지만 일부 의원이 인과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반대 의견을 표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재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는 신규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융그룹 모범규준 5월 시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잠재적 위험요인 선제관리 부족
위험평가방식 개선엔 인센티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된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모범규준은 오는 7월 만료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연장·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을 통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제도가 상당부분 안착된 측면이 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선 아직까지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제도운영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 중인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누어 추진되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가산 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그룹위험을 시장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금융그룹 차원의 현황은 금융당국이 자료제출을 통해 모니터링했지만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며 “그룹 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 요인은 수시보고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매출 90% LG화학... GM과 공장설립 검토

IPO 간담회

2차전지 공정장비 ‘나인테크’

불량제품 검사장비 개발 돌입
내년 中 넘어美·유럽 개척나서

2차전지 훈풍을 등에 업고 나인테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나인테크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연한 기업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국내 IT(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달 3일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오는 4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나인테크는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전문기업이다. 2006년 설립돼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 성장하다 사업 다각화를 모색한 끝에 2차전지 조립 공정 장비로 사업을 확대했다.

나인테크의 최대 거래처는 LG화학이다. 전체 매출액의 90%를 차지한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지리자동차와 50대 50의 지분투자를 통해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미국 GM자동차와도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나인테크에도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근 L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G화학의 요청에 따라 2차전지 불량 제품을 걸러내는 검사 장비 개발에 들어갔다.

특히 롤투롤(Roll to Roll) 방식의 2차전지 조립공정 장비에 힘을 쏟고 있다.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이사는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아우르는 롤투롤 방식의 기술 경쟁력은 확실한 경쟁우위 요소”라며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제품 확대를 통해 매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5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예상 매출액은 735억원에 달한다. 대표는 “올해도 2차전지 업체에 훈풍이 불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해 전체 매출 증가율이 20%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장비 리퍼비시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내년쯤엔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우치형 2차전지 조립 장비 분야를 명품 브랜드화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국내 2차전지 제조사 해외공장에 대응하고 중국 영업활동을 개시해 매출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신규 공정 장비 개발을 통해 진입장벽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내년부터는 중국 시장 공략을 넘어 미국과 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도 나설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의 개화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술을 확보한 나인테크 역시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다수의 패널제조사 제품 공급 실적을 확보했다”며 “고도화된 기술로 핵심 특허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나인테크는 국내에서 9건, 중국에서 3건씩 각각 특허 출원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해외 글로벌 매출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고객인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등에 이어 중국 BOE, 티엔마, CSOT, 비전옵스 등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상장주관사는 교보증권이며 합병법인은 교보7호기업인수목적주다. 액면가는 100원, 합병 후 주식 수는 3712만 6554주가 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50대 이상 돈 안쓴다

2012년 기점 소비성향 하락 주도

지난 2012년 이후 5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비성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하며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성향은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다 2015년 이후 소폭 반등했다.

이는 소비성향 변동이 단기간 하락한 후 바로 회복됐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소비성향 등락과는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 대비 2018년 소비성향 변화를 요인별 기여도로 분해해 분석한 결과 최근 소비성향 하락은 50대 이상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가 주도했다.

소득을 통제한 후 연령대별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0.3%포인트, 40대는 -1.5%포인트, 50대는 -2.1%포인트, 60대 이상은 -1.6%포인트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한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은 소득 1분위 0.2%포인트, 2분위 -0.5%포인트, 3분위 -0.8%포인트, 4분위 -1.9%포인트, 5분위 -2.7%포인트로 고소득일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개인간 중고차 거래, 카드결제 하세요”

KB국민카드, 8월부터 서비스 도입
현대캐피탈, 중고차 구독 ‘딜카클럽’

최근 주요 카드·캐피탈사가 디지털을 더한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사업역량을 키우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된 금융사들이 자동차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관련 디지털 역량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오는 8월 개인간 중고차카드 결제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시, 개인 판매자에 신용카드 가맹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초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는 현금결제만 가능해 거래사기, 하자차량 판매 등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했다. KB국민카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할부결제 등 보다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차 구독 서비스도 등장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중고차 구독 서비스인 ‘딜카클럽(CLUB)’을 출시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 구독료를 지불하지만 하면 구독기간 동안 원하는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는 간편성과 다양성을 담았다. 고객은 복잡한 서류 없이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트형’,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종 선택의 폭을 넓힌 ‘스탠다드형’, 고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형’ 등으로 서비스 구성도 세분화됐다.

자동차금융 시장이 발달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은 필수적이다.

독일 폭스바겐과 피낸셜은 고객·딜러·금융기관·완성차업체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출시했다. 플랫폼에서는 세분화된 상품구성, 투명한 가격정보, 고객경험 기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